



봉우 컬럼

오늘 최선을 다하라

몇 주 전, 나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그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한다.'고 설교했다. 그런데 정말 그 예배를 끝으로 세상을 떠난 성도가 있다. 나는 그 소식을 접하고는 머리가 쭈뼛 섰다. '그 설교하기를 잘했다.' 싶었다.

나는 단에 설 때마다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한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게 된다. 어떤 이는 내 설교하는 모습이 무섭다고 하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설교가 조용조용, 차근차근 할 수 있을까. 격앙되고 힘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간절하겠는가. 지금 하는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겠는가. 교회에 봉사하는 갖가지 일들이 얼마나 귀하겠는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라고 한다. 만일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대충 하루를 보낼 사람은 없고, 거짓되게 하루를 마감할 사람도 없다.

진리 중의 진리는 바로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이고,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겨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오늘에 최선을 다하다보면 그것이 습관이 될 것이고, 그 습관이 위대한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오늘 가족과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보자.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오늘 모든 것을 용서해보자. 오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자. 그러면 그 오늘의 최선이 쌓여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이요, 결국엔 그 날에 상과 면류관을 받는 최고 인생이 될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리라"(눅16:10).

도전과 모험은 젊음의 특권이다

현재 목사님은 기도원에서 청소년수련회 및 하계산상집회를 준비하고 계신다. 해마다 진행하는 것이지만 특히나 청소년수련회에 교단의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한 나라의 젊은 세대는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여 이 나라와 교회를 튼튼하게 이끌어갈 자원들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정치가나 사업가를 길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교회와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족 중에도 주목받지 못하는 여덟 아들 중 막내요, 형제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혼자 멀리 들판으로 보내져 양떼나 돌봐야했던 목동이였다. 딱히 좋은 교육이나 좋은 직장 등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소년이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용모나 신장 등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일곱 형제는 마다하고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신다. 다윗의 삶을 아주 단 순화해서 설명하자면, 다윗은 돌 하나 잘 던져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요, 사업이나

2005년 세계목회자영성세미나 때, 이스라엘(Israel)에서 찾아온 시몬(Simon Nahum) 목사는 멀리 동방의 작은 나라에 지혜로 가득한 종이 있다는 계시를 받고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간증했었다. 목사님의 지혜는 해외에서 만난 주의 종들뿐 아니라 대통령부터 주지사, 시장 등 많은 권력자들이 탄복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목사님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목사님 역시 30년 이상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던질 만큼 순전한 믿음으로 달려오신 분이다. 목사님의 삶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 별로 없다. 오직 목회와 선교에만 집중되신 분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은 올해도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신다

지나해 목사님께서 청년부 담임을 자처하시며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쏟으셨다. 목사님께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강조하시는 패기와 기백, 도전과 모험정신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정신이다. 사자와 늑대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소년 다윗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지 아니하고 하찮은 물뿔돌로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17:45).

정치적 수완이 좋았던 것도 아니요,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맡겨진 일에 충성한 일꾼이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지혜는 거저 나오지 않는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 곧 문제를 친구 삼고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번민하는 자, 계속해서 도전하며 모험을 시도하는 자에게 지혜가 불꽃처럼 일어나는 것이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그가 골몰한 것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혜였다. 그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삼천번제를 드리며 간절히 구했던 것이다.

다 '어떻게 하면 예수 앞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좌절한 영혼들을 살릴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분이다. 그러니 지혜가 임하는 것이다.

현실의 고통과 불투명한 미래에 좌절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도전과 모험은 젊음의 특권 아닌가. 먼저 하나님을 확실히 소유하기 바란다. 다가오는 청소년연합수련회는 다시없는 영적 기회가 될 것이다. 교단의 모든 젊은이들뿐 아니라 '너도 가자, 나도 가자' 하며 많은 젊은이들이 동참하는 영적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은택 전도사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

청년대학부 : 7월 24(월)~26일(수)

중고등부 : 7월 27(목)~29일(토)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28:1)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삶은 곧 만남이다.’
제 나이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만나고, 점차 친구와 이웃,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만남 속에서 산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이 롤 모델이 되느냐, 어떤 사람 속에서 사느냐가 당신을 꽃길로 걷게 할 수도, 당신을 가시밭길로 걷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술주정뱅이를 만나면 술을 입에 댄 것이고, 도둑놈을 자주 접하면 도둑이 될 소지가 많고, 사기꾼을 만나면 나도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를 만나면 공부하게 되고, 운동하는 자를 만나면 운동하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아합왕이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만나니 결국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짓는 등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그랬고요.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을 아시지요? 투자의 귀재지요. 그런데 그 사람과 식사한 번 하려면 수백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그런데도 식사 예약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돈 자랑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을 만나 그 사람의 성공담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워렌 버핏이 몇 십 년 동안 애써 정립한 투자 노하우를 몇 시간 만에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거금을 내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의 만남을 통해 얻은 투자의 노하우로 수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고 하니 결코 손해 보는 투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맥은 금맥이요 성공의 인프라다

둘이 석수장이를 만나면 주춧돌이 되지만, 조각가를 만나면 멋진 작품이 됩니다. 나무도 목수를 만나면 의자가 될 수 있지만, 산골 농부의 손에 들리면 뿔감 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를 만나야 하고, 적극적인 자를 만나야 내 인생이 편합니다. 생각이 크고 마음이 큰 자를 만나야 내 생각도 커지고 마음도 넓어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자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자가 되고, 악을 품은 자를 만나면 나도 악인이 됩니다.

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27:17).
전(前)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이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학창시절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후에 꿈을 키웠답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스승을 잘 만나 사람 구실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가로, 세계적인 문필가로 유명해졌고요. 장미꽃의 시인으로 불리는 라이너마리아 릴케는 로망을 만나 자신의 예술과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모세를 만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가는 복을 누렸고, 야곱을 만난 라반이 부요하게 되었으며, 요셉을 만난 바로가 애굽을 위경에서 건졌을 뿐 아니라 나아가 대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는 갑질의 능력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같은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머슴을 살아도 정승집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남은 꼭 동시대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이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많은 위인과 성공한 자들과 만나고 그들의 지식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틈이 날 때마다 손자들에게 위인전을 읽고 소감을 글로 쓰거나 발표하라고 합니다. 그네들이 제 뜻을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책을 통해 위인들과 만나고 그들에게서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전들의 믿음을 배우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일생일대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 분을 만나면 영혼구

원은 물론이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섯 남자를 데리고 살던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요4:39). 벧사람인 시몬은 예수를 만나 베드로라는 사도가 되었고, 바울이 된 사울은 다메섹을 지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행9). 물질에 집착하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눅19:1~10).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농사꾼의 자녀에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것은 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만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같이 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그런데 만남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리’입니다. 의리(義理)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말입니다. 곧 그것은 사람에게서는 신뢰요, 하나님께는 믿음이지요. 이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만남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았기에 사라가 127세로 죽어 묻을 매장지가 없었을 때 헛 족속 사람들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창23:6) 라고 한 것입니다. 어디 사람에게 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삭을 제물로 내놓는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께도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잠10:2),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잠11:4).
여러분, 인맥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맥은 금맥이며, 무형의 자산입니다. 튼튼한 인맥은 성공의 디딤돌이고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인맥형성에 공을 많이 들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실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만사형통한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 37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그 배후에서 그를 돕고 따르던 자들로 다윗의 조력자이며, 다윗의 인맥입니다. 요셉도 술관장을 만나 인맥을 쌓았기에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창40).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대표 화가이자 조각가, 건축가인 미켈란젤로도 이탈리아의 여러 곳에 살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객과 인맥을 쌓은 덕분에 바티칸 궁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천지창조’를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인맥을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 당신이 동업하는 사람, 당신이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생각이 적극적인 자와 동행하면 적극적인 자가 되지만,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고, 당신의 삶이 그들로 인해 좀 먹기 때문입니다(잠13:20).
당신은 누구와 만나고 있습니까? 그 만남이 당신을 성공으로도 실패로도, 당신의 삶을 명작으로도 혹은 졸작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지난 5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전 참전용사기념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은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국 병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소액 헌금을 모아 조성된 공원입니다. 입구에 있는 검은색 화강암 벽에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자유를 얻기 위해 치른 대가가 전사 36,574명, 실종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 103,284명의 직접적인 인적 희생과 전쟁을 위해 동원된 580만 명의 지원인력이라는 통계치가 기념비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전에서 희생한 규모에 깜짝 놀랐지만, 그 옆에 있는 아래 문구를 보고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se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나라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해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우리나라는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가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가슴에 새겼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민주열사의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였고, 우리가 현재와 같이 유사 이래 가장 큰 물질적 풍요

로움을 가지게 된 것은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이겨낸 대부분의 근면한 국민들이 흘린 피땀의 결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고결한 목숨을 던진 순교자와 전도자의 값진 헌신과 봉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아의 올림픽 금메달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운동하중을 견디다가 형태가 흉측하게 변해버린 발가락을 희생물로 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스티나 성당의 불후의 명작인 천지창조는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에게 불치의 목 디스크와 시력장애를 대가로 남겼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그 성공 뒤에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대가가 필수 요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동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천적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뿐인 아들을 희생의 재물로 삼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배려로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쥐뿔에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진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 성경에세이 ::

주의 종을 험담하지 말게나

여보게!
타 교단의 어느 부목사가 나를 찾아왔다네. 그는 나에게 자기 담임목사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더군. 뭐가 틀렸고, 뭘 잘못했고, 뭘 실수했는지 계속 말했네. 그레놓고 나에게 하는 말이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다는 거야.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고 하더군.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가? 당연히 ‘No’했네. 왜 No 했는지 아는가?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가 뭐가 맘에 안 들면 또 나가서 나와 우리 교회를 헐뜯을 거니까.

여보게!
자네는 가족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나?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나발을 부나? 아니지? 행여 누가 알까봐 쉬쉬하고, 누가 알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겠지. 그게 가족이지. 더욱이 자신이 모시던 분이 잘못을 했다고 그분을 욕하면 되겠나?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네. 목사라고 예외겠나. 목사라고 다 잘할 수는 없지. 그러나 목사가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욕하면 안 된다네. 왜냐면 목사는 하나님

의 종이기 때문이야. 잘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고 혼내신다는 걸 알아야 하네. 괜히 성도들을 동원해서 목사를 대적하는데, 그건 성도들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거라네. 목사가 잘못해도 가만있으라는 게 아니야.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조용히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는 거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네. 모세가 이방여인을 취했으니 잘못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비방한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했다네. 모세가 미리암 낫기를 기도하자 주님은 한 말씀하셨지.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음직라도 그가 칠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민12:14). 아비가 자녀에게 침을 뱉어도 부끄러운 일이 거늘 하나님의 종을 비방해서야 되겠느냐고 일침을 가하신 거라네.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야. 그러니 괜히 죄 짓는 일은 안했으면 한다네. 또한 목사들도 사욕을 버리고 오직 그날의 상만 바라보고 달려갔으면 하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이룬 교회와 성도들이 한 순간 무너지지 않도록 말일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朋友

수련회 갑시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수련회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나는 이번에 조 담임교사가 되었는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이 우리 조에 있다. 그 친구의 가정은 불교집안이지만 친구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때마침 수련회 기간이 되어 수련회에 가려고 마음먹었고, 다행히 부모님께서도 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다. 하지만 며칠 만에 부모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이 학생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만나면 ‘따로 기도를 해줘야겠다.’ 라는 감동이 왔다. 주일예배가 끝나고 따로 불러서 감동 오는 대로 기도를 해줬다. 그러나 이후 조별 모임에서도 그 학생은 수련회에 못갈 것 같다고 하면서 울먹였다. 나는 그 학생에게 “아니야, 너는 수련회에 꼭

갈 수 있어. 두고 봐. 꼭 가게 될 거야.”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다. 며칠 후 그 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모님께서 다시 허락해주셨다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다. 나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수련회는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다. 어떤 이는 수련회에 왜 가야하냐고 하지만 누군가는 수련회를 통해 결단하고 변화되어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와 비전을 기대해야 한다.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단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

이은성
es2563@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내 인생의 ‘마스터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방탈출 카페’라는 곳이 인기다. 이는 방탈출 게임과 추리물의 인기로 힘입어 대학가나 번화가에 새로 자리 잡은 놀이문화 공간인데, ‘방탈출 카페’란 마치 TV프로그램을 촬영하려고 만든 드라마 세트장 같은 곳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되어 제한된 60분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방을 탈출하는 것이 목표인 놀이로, 제한된 공간에서 친구들과 같이 방탈출을 위한 자물쇠 풀기, 문제풀이 등의 미션을 해결하는 매력적인 콘텐츠이다. 이는 2007년쯤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 등 서구권, 싱가포르 등의 지역을 거쳐 2015년 한국에도 생겨난 이후 2017년 4월 현재 전국에 130개 정도의 매장이 운영되며 전국적으로 성업 중이다. 며칠 전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젊은이들이 이토록 열광하나 싶어 ‘방탈출 카페’를 방문해보았다. 한 문제 한 문제 어려운 퍼즐을 맞추고, 숨겨진 힌트를 찾아 자물쇠를 풀 때마다 마치 내가 추리소설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같이 간 친구들과는 환호성을 질렀고, 마침내 방을 탈출하는 문이 열리던 순간

간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번 주일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다가오는 2017년 제21회 전국청소년연합수련회에 앞서 지난 수련회 설교영상을 보여주셨다.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모든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며, 모든 문은 열라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때마침, 여러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여 방탈출 카페의 자물쇠를 풀어본 과정을 경험한 나에게 이 말씀은 정말 깊이 와 닿았다. ‘어려운 퀴즈도 풀었는데 현실의 문제를 못 풀게 무엇인가?’란 강한 자신감까지 생겼다. 나는 이제 2017년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전국청소년연합수련회에 참석하여 현실에 닥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야근과 주말근무도 마다 않으며 휴가일정을 맞춘 이 수련회가 내 운명을 바꾸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 인생의 ‘방향키’이자 내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이신 가장 귀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생일대 최고의 수련회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마7:7).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33세 주부의 감동글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세 살 먹은 주부예요. 서른두 살 때 시집와서 시댁과 분가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혼자 계신 아버님을 모시자고 이야기하더군요. 어느 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아주버님이 대기업 다니셔서 형편이 정말 좋아요. 그 일로 남편과 매일 싸우고 부끄러웠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다른 거는 하지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적에 엄청 개구쟁이였대요. 매일 사고쳐서 아버님께서 매번 뒤통수하러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받힐 뻔 한 걸 아버님이 남편 대신 부딪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 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이 막노동을 하셨는데 남편이 제대하고도 스물여섯 살 때쯤까지 놀고먹었다고요.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가 되세요. 남편은 서른세 살이고요. 60세가 넘으셨을 때도 막노동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만 하셨다네요. 노가다를 오래 하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거 때문에 손도 찌적 갈라지셔서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 괴로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온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마한 집도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 장만해주신다고 팔고 지금은 전세 사신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요, 전 살림하고 남편 혼자서 버는데 한 달에 150만 원정도 벌어요. 근데 아버님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그걸로는 힘들 거 같더라고요. 임신 3개월인데, 형님은 절대 못 모신다고 못 박으셨고, 아주버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저렇게까지 남편이 말하는 데.... 그래서 넉 달 전에 아버님을 모셔

왔습니다. 아버님은 안 오시겠다는 걸 남편이 우겨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 엄청 미안해하십니다. 가끔씩 고기반찬이나 맛있는 거 해서 드리면 안 먹고 두셨다가 남편 오면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 보고 집에 왔는데, 걸레질을 하고 있으신 거 보고 놀라서 걸레를 뺏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바로 들고 가서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아버님께 하지 마시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뺏어도 보지만 그게 편하시답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이시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 어제는 정말 슬퍼서 펄펄 울었어요.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때 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거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지도 않으시고 웃으면서 “다녀올게.” 하시며 매일 나가셨습니다. 어제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 실어서 가는데.”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아들집에 살면서 돈 한 톨 못 버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끌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스 주우시면서 돈을 버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 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서 아버님 찾으러 나간다고 하곤 바로 나갔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이 아버님께서 어떻게 일해서 사온 것인지...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집 오셔서도 편하게 못 지내시고, 눈치만 보시다가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셨다니.... 우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한참을 펄펄 울었습니다. 남편 나가고 한 시간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은 오시면서도 제 눈치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요. 달려가서 아버님께 죄송하다며 손 꼭 잡고 또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 손을 천만번 만져봤는데,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살 박인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방 안에 모시고 가셔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펄펄 울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께 그런 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일 하지 마시라고 아버님께 확답을 받아낸 후 세 명이 모여서 조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노는 날이라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서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구요.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방송이랑 낚시방송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또 아팠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평생 아버님을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신다고요.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주시 때까지 정말 잘 할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제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아버님의 힘드신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잖아요. 그랬다면 지금의 저와 뱃속의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 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렇게 일 안 하셔도 돼요. 저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아버님!

행복은 셀프!

모리스 메테를링크(Maurice Maeterlinck, 1862~1949)가 쓴 ‘파랑새’를 인상 깊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두 어린 아이가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파랑새를 찾아 꿈속에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파랑새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꿈에서 깹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두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새장에 기르고 있던 산비둘기의 깃털이 그날따라 유난히도 파랗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는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들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행복이 누군가가 초인종을 울리며 배달해 주는 퀵서비스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백마 탄 왕자를 동경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일상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른 아침 성령님께 러브콜을 보내며, 파란 하늘위에 떠있는 조각구름과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는 얼굴에서,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백발이 된 노부부가 손을 맞잡고 느린 걸음으로 산책하는 모습 속에서 행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던 소년이 번쩍번쩍 광이 나는 자전거가 부러운 듯 “아저씨, 그 자전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죠?” “내가 산 게 아니고 형이 사줬어. 너도 형한테 이런 자전거 받고 싶지?” “아니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 주는 형이 되고 싶어요.” 동생을 향한 형의 이런 소박한 행복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과 소유가 아닌 내 마음상태와 삶의 가치 속에서 결정되는 행복은 향수와 같아서 자신에게 먼저 뿌리지 않고는 남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행복을 꿈꾸십시오. 그리하면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 두려움은 인류 최대의 적이다

Fear is the most dangerous enemy for mankind.
惧怕是人类最大的敌人。

☞ 네 두려움과 우유부단한 태도는 상대에게 불신만 낳는다

Your fear and indecisive attitude bring others to distrust.
你的惧怕和优柔寡断的态度只给对方产生不信任。

Good News

어느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문의 족보’에 대해 조사해서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조상에 대한 자랑으로 일관하는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발표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안절부절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보육시설에서 자라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예상 외로 차분하지만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제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서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랍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의 발표를 듣고 있던 선생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그분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하계 산상집회

일시: 7월 31(월)~8월 17일(목)
장소: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02-533-9191

호텔 예약
(예약 www.jcc.tv 정각 10시)
18일(화-첫째 주)
19일(수-둘째 주)
20일(목-셋째 주)